

# 제1호 특허담보부 사업화자금 대출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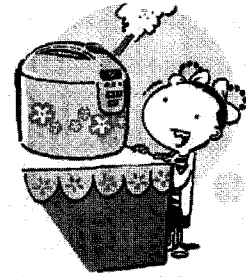
산업은행은 특허청(청장 김종갑)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난 4월 특허기술가치평가(이하 '가치평가')에 의한 제1호 특허담보부 사업화자금을 대출한다고 밝혔다.

이 대출은 가치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등의 담보없이 특허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출하는 국내 최초의 순수 기술력 위주 대출방식이다. 특허청과 산업은행은 우수 특허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기술력 및 사업성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우수 특허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특허권을 담보로 사업화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4일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고, 금번 제1호 특허담보부 사업화자금은 이 협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 ㈜플라즈마랩(대표 이춘우)에게 대출되었으며, 제1호 이외의 현재 가치평가 후 각 지점에서 대출심사 중인 사업화자금 대출대기 건이 3건 더 있다고 산업은행은 알려졌다. 이번에 사업화자금을 대출받는 ㈜플라즈마랩은 매출규모 9억원에 EEFL(Exterior Electrode Fluorescent Lamp, 외부전극형광램프)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으로, 대표이사 전 광운대 전자물리학과 교수이기도 한 전형적인 기술중

심형 중소기업으로 가치평가는 '외부전극형 방전관의 제조장치 및 그 제조방법(등록번호 제 10-0469000호)'와 2건의 특허에 대해 수행되었다. 이로써 그간 부동산 등의 현물담보를 요구하는 금융 관행으로 인하여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하면서 매출실적도 좋은 건설한 중소·벤처기업이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특허청과 산업은행의 협약으로 이들 중소·벤처기업에게 특허권을 담보로 한 사업화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이번 제1호 대출은 요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술금융(기술에 의한 사업화자금의 투·융자)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기술금융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금년 3월부터 가치평가에 의해 평가기관이 사업화자금을 직접 투·융자하는 경우(평가기관과 금융기관의 컨소시엄 포함), 또는 사업화자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번 제1호 특허담보부 사업화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의 일부를 산업은행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생활 정보

## '아차!' 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똥밖의 사고' 예방하기



조금만 부주의하면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는 미리 조심만 하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집안에서의 크고 작은 사고, 미리 막는 안전 지침을 소개한다.

#### 가전제품 사용은...

- 전기밥솥은 조금 높은 곳에 놓고 사용한다. 바닥이나 너무 낮은 곳에 두고 쓰다 보면 뜨거운 김이 나오는 부분에 어린아이가 화상을 입기 쉽다.
- 형광등이나 전구를 갈아 끼울 때 닫고 사용하는 의자는 가족 중 누구라도 꼭 잡아주도록 한다. 특히 바퀴가 달린 의자 위를 올라가 작업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 뜨거운 다리미를 켜놓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자리를 뜨지 않도록 한다.
- 취침할 경우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가스나 시건 장치를 확인한다.

#### 집안일도 조심! 조심!

- 무거운 짐을 들 때에는 낮은 자세로 하고, 양손으로 허리나 다리에 중심을 잘 잡고 들도록 한다. 제대로 자세를 잡지 않고 들다가는 요통의 원인이 된다.
- 재활용품이나 쓰레기 부피를 줄이기 위해 내용물을 정리하다 자칫 날카로운 것에 찔리거나 손톱 밑을 다치게 된다. 무심코 하다가는 다치기 쉬우므로, 가능하면 면장갑을 끼고 만지도록.

#### 사고 원인은 미리 막는다!

- 아기를 키우는 경우 소파나 식탁, 의자를 살 때는 모서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가장자리가 둥글게 되어 있는 것을 고른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각이 졌다면 형질 등으로 감싸서 미리 예방한다.
- 욕실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한다. 기존에 타일이 미끄럽다면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이거나 뿌리는 슬립 방지제를 사용한다.
- 초등학교 입학 전후의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베란다 주변에 의자를 놓지 않도록 한다. 자칫 어린아이가 의자에 올라가 뛰어놀다 추락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

# 우리쌀 지키기 묘책 특허 출원

전북 김제의 '우리쌀 지키기 운동본부'는 우리쌀을 사면 '할인쿠폰'을 주는 판매방식을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우리쌀 일반미 20kg(4만3천~5만4천원)를 살 경우, 협찬 기업이 제공하는 2만원(무농약 고급쌀은 3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받아 해당기업 제품을 구입할 때 쿠폰액면가 만큼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특허는 오는 9월 쌀밥용 수입쌀이 20kg당 4만2천원 정도에 판매될 경우, 소비자들을 한국쌀로 유인하기 위한 '가격과 혜택'이 될 수 있어 주목되고 있고 협찬 기업은 쌀 포장지에 인쇄된 로고와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팜플렛을 통해 광고 효과를 얻게 된다. 할인쿠폰은 온라인(www.krice.co.kr)과 오프라인에서 우리쌀을 구입할 때마다 마일리지로 적립돼 운동본부가 협찬·지정한 주문배달 상품, 전자제품, 친환경 농산물과 관광축제 상품 등을 구입할 때 가격의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손철(56) 우리쌀 지키기 운동본부장은 '농민, 소비자와 기업 등이 모두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쌀 지키기 운동본부는 전남북과 충청 등지의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 4월 설립됐다.

## 천연 왕골 찻뚝자리

### 황토 욕 매트

**왕골 찻자리의 장점**

- 촉감이 상쾌하고 부드럽다.
- 왕골자체에 염분성분이 함유되어 땀 흡수력이 좋다.
-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여 사계절 사용이 가능하다.
- 빗집이 좋고 윤기가 나며, 잘부러지지 않는다.
- 우리 고유의 전통 공예품으로 우아하고 품위가 느껴진다.

실용신안등록출원 제 85-269  
 실용신안등록출원 제 20-2000-0036503  
 의장 등록출원 제 85-288  
 의장 등록출원 제 30-2000-0032725  
 의장 등록출원 제 93-36003  
 의장 등록출원 제 93-3753

삼보뚝자리

**일진의로기 · 삼보상사** 대표 김향순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608-3번지 TEL 031-985-7784 FAX 031-985-7776 MOBILE 011-284-2334

# 두산식품 BG, 종가집 '집김치' 새롭게 선보여



두산식품 BG가 지난 5월 16일 유산균 기술을 적용해 '종가집 김치'의 맛과 품질을 한 단계 높인 종가집 '집김치'를 선보였다.

두산식품 BG는 지난 5월 16일 유산균 기술을 적용해 '종가집 김치'의 맛과 품질을 한 단계 높인 종가집 '집김치'를 내놓았다. '집김치'는 새롭게 개발된 김치유산균 '류코노스톡 DRC0211'

(특허출원번호 10-2002-78581)'을 넣어 신선한 김치의 맛을 오랫동안 느낄 수 있게 한 것이 특징. 두산 김치연구소는 김치의 신선한 맛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김치유산균을 찾아내기 위해 지난 3년간 전국의 김장 김치를 연구한 결과 5백여종의 유산균 가운데 '류코노스톡 DRC0211'을 찾아냈다.

'류코노스톡 DRC0211'을 김치에 넣게 되면 김치의 맛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김치를 시게 하는 산패균의 번식을 억제해 김치의 아삭하고 시원한 맛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준다

고 회사 측은 말했다. 또한 김치의 저장성을 높여줘 김치 수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위규성 마케팅 본부장은 '일본의 기무치와 중국의 저가 김치에 밀려 김치 중주국으로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맛과 품질이 향상된 종가집 집김치로 김치 세계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김치는 새우젓을 사용한 '포기김치(1kg, 8천1백원)', 멸치젓을 넣은 '남도식 포기김치(1kg, 8천8백원)', 통무를 넣어 만든 '통무 포기김치(1kg, 8천1백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 건강 상식

## 여성 탈모 점점 늘어나는데...

대머리는 남성만의 고민이 아니다. 전체 탈모 환자 20~30%가 여자인 것. 앞이마부터 벗겨지는 남성과는 달리 머리 전체에서 골고루 탈모가 진행되어 눈에 덜 보일 뿐이지 고통은 남성에 비해 바가 아니다. 여성 탈모의 원인, 예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대부분의 여성 탈모는 모발의 앞 이마선은 그대로 유지되며 대개 정수리 부분의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탈모가 진행되는 '전체 탈모형'이다. 여성의 탈모는 남성과 달리 서서히 진행되지만 임신이나 폐경을 전후해서 급속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여성의 탈모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면 원형 탈모증 같은 병이 생겼거나 물리적 자극에 의한 국소적 탈모, 질병, 복용약 등에 의한 탈모를 의심해야 한다.

### 이럴 때 '탈모'가 심해진다!

- 질환을 앓고 있을 때 : 빈혈, 갑상성 질환, 안드로겐 과다 분비 유발하는 다른 내분비계 질환, 난소 종양 등 부인과 질환, 루프스 같은 결합 조직 질환 등의 병을 앓을 때 탈모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 의약품 복용 중일 때 : 경구 피임약, 갑상선 치료약, 고혈압약, 우울증 치료제와 기타 정신과 약물, 혈액 희석제, 소염제, 과도한 비타민 A 섭취 등으로 탈모가 심해질 수 있다.
- 기타 : 전신 마취와 외과 수술 후, 급격한 체중 저하 또는 지나친 다이어트, 심한 정서적 스트레스, 출산 이후, 폐경 이후 등의 이유로 탈모가 심해질 수 있다.

### 여성 탈모 예방법 10가지

1. 스트레스를 관리해 정신적인 안정 상태를 유지한다.
2.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3.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을 많이 먹고 콩, 두부, 우유 등을 섭취하여 칼슘섭취를 늘린다.
4. 과도한 음주, 흡연, 커피, 인스턴트 식품,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자극적인 음식 등을 피한다.
5. 두피에 비듬, 피지 등 노폐물 등이 쌓이지 않도록 1~2일에 한 번씩 머리를 감는다. 비누보다 샴푸가 좋으며 린스는 두피가 아닌 머리카락에만 묻혀 잘 행군다.
6. 두피에 빗이나 손톱으로 자극하거나, 머리를 너무 세게 묶지 않는다.
7. 손이나 끝이 부드러운 브러시로 적당하게 두피를 마사지한다.
8. 머리를 감은 뒤엔 잘 말린다. 머리카락을 비벼서 말리거나 너무 뜨거운 헤어 드라이어를 사용하면 모발이 상하는 것은 물론 탈모의 원인이 된다. 머리를 잘 말리려면 티월로 토크 두드러서 물기를 제거한 뒤 헤어 드라이어 바람은 차게 하여 말리는 것.
9. 파마나 염색을 자주 하지 않도록 한다.
10. 헤어 왁스, 무스, 스프레이 등 스타일링 제품을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비누보다 샴푸로



염색은 금물

# 이공계 공직 진출, 특허청에 길이 있다

특허청은 지난 4월 변호사·박사·기술사·변리사 등 1천2백23명의 응시자 중 1백26명의 5급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2명을 모집하는 5급 행정직 공무원에는 변호사 1명, 산업디자인 박사 1명이 합격하였으며, 기계·화공·통신 등 모두 18개 기술분야의 5급 기술직 공무원에는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 1백10명, 기술사 7명, 변리사 8명 등 총 1백24명이 합격하였다.

5급 공무원 특별채용 합격자를 분석해 보면, 전공분야 기술에 대한 지식과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되는 변리사 8명은 '94년 이후 특허청에 특별채용된 인원(2명)에 비하여 무려 400% 늘어난 것으로, 이는 특허청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조하여 변리사의 5급 특별채용 경력요건을 완

화(4년→2년)하는 등 우수 이공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분석된다. 5급 행정직 공무원으로는 변호사도 3명이 응시하여 1명이 합격하는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합격자 중 여성은 27명으로 약 21.4%의 비율을 차지하여 '94년 이후 특허청의 특별채용에서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섬세함이 요구되는 특허심사관이 여성 이공계 전공자들에게 적합한 직종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5급 기술직 공무원 1백26명의 특별채용은 특허청 내부의 인적구성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행정·기술고시 합격자나 7급·9급 시험을 통해 승진한 공무원 등 공개채용을 통한 5급 공무원 수와 대비해 볼 때 특별채용 절차를 통한 5급 공무원 수가 대등한 정도

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채용에서 무엇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특허청은 물론 전체 정부기관 중 가장 대규모인 총 1백26명의 5급 공무원 특별채용을 앞두고 특허청이 특별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다는 것이다.

금번 합격자들은 앞으로 특허인력 전문교육기관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한달 간의 심사관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전공분야별로 배치된 부서에서 일정기간의 심사업무 수습을 거쳐 5급 특허심사관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특허청의 이공계 전문인력 특별채용은 특허행정의 전문성 제고 및 이공계 인력의 공직진출 확대를 통해 국가기술경쟁력의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 지재권 관련 국제기구 의장 재선출



WIPO 사업예산위원회 의장으로 재선출된 특허청 안재현 과장.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본부에서 개최된 '제8차 WIPO 사업예산위원회 회의'에서 특허

청 안재현 과장(서기관)이 미국, 일본을 비롯한 89개 이사국의 만장일치 지지로 의장으로 선출되었

다고 한다. 이번 회의는 약 4천5백14억원(5억3천1백만 스위스프랑)에 해당하는 2006~2007년간 WIPO의 주요사업과 예산안을 심의하는 주요 회의로, 이번 WIPO 사업예산위원회의 의장 재선임은 APEC 지식재산권전문가그룹(IPEG) 의장국 선출과 더불어, 그동안 특허청(청장 김중갑)이 적극 추진해온 지재권 분야에서의 국제무대 진출 강화와 특허행정의 세계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WIPO 사업예산위원회 의장으로 재선출된 특허청 안재현 과장은 2000년 8월부터 2003년 8월까지 3년간 제네바 대표부의 특허관으로 근무했었다.

WIPO는 특허, 상표, 의장,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인터넷 도메인 네임 등 각종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이슈를 총괄하고 있는 UN 산하 전문 국제기구로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등 23개 국제조약을 관장하고 있다.

# 산자부, 중국에 'IP 차이나 데스크' 설치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특허 업무를 지원할 전담조직이 하반기 중국에 설치된다. 산자자원부는 지난 5월 12일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특허지원 전담조직인 IP 차이나 데스크(IP China Desk)를 설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이 확대되면서 상표·특허기술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가 시급하지만, 현재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과도한 비용 부담 등으로 지재권 분쟁 시 자체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올 하반기 중 북경·청도의 투자기업지원센터에 각각 IP차이나 데스크를 설치하고, 중국 현지 지재권 전문 변호사와 변리사 4명을 고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이미 중국에 특허관을 파견, 자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 지적재산권부와 지재권 협력 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